

#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 A Historical Study on Gye from The Home Welfare Point View

충북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강 사 : 柳 貞 順

Dept. of Home Management

Chungbuk University

Lecturer : Jeong Soon Row

### 목 차

- |                       |                    |
|-----------------------|--------------------|
| I. 서 론                | IV. 복지관행으로서 계의 한계점 |
| II. 복지관행으로서의 계        | V. 시대에 따른 계의 변천    |
| III. 계에 나타난 가정복지적 요소들 | 참고문헌               |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histoiral development of Gye from the home welfare point of view. The origin of gye can be found ancient primative society but it was widely organized middle of Y<sub>1</sub> Dynasty of Gye was originally welfare organization but changed to financial organization later. Gye can be classified as an organization 1) to realize common purpose as a whole community & 2) to realize common purpose as a household or individual. Home welfare function of Gye are studied on 8 areas.

In order to revitalize original Gye spirit in the modern society following was suggested ;  
 1) For the rural village, to be unified under Durae's spirit and organize Farming Company ;  
 2) For the urban community, to link needy people's Gye and above middle class people's Gye and utilize as civil welfare organization ; 3) For financial organization, to develop a pool financial product.

### I. 서 론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가정복지의 관점에서 본 계의 역사적 고찰

최선의 해결책을 구하게 된다. 시대적 상황은 역사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진행되는 역동적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오늘의 가정복지가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하여는 과거의 역사와의 연결을 통하여 한국인의 의식에 뿌리박힌 복지의

식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토대 위에서 현재의 실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한국적 문화에 뿌리박힌 전통적 복지의식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없이 피상적인 서구제도의 모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현상 상황에서 개인과 가정 스스로의 위험보장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역사의 오랜 시대에 걸쳐서 널리 행해져 왔던 계에 표출된 복지적 요소의 고찰과 현대사회에서의 계정신의 계승점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에 적합한 가정복지 증진방안의 모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계는 우리나라 古語로서 그 본래의 뜻은 결취(結聚), 결합, 언약, 상회(相會) 등의 내용 즉 '모임'이란 뜻을 가진다. 계의 정의에 관해서는 많은 주장들이 있지만 계원의 상호부조로 친목, 통합, 공동이익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규약을 만들고 규약에 따라 상호 금품을 각출하여 자본을 만들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공동이익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체로 학자들 사이에 일치하고 있다(김삼수 1964).

계는 공적인 복지혜택이 거의 미미했던 전통한 국사회에서 가정이 직면할 수 있는 수해, 지진, 한파 등의 재난에 대한 일반경제적인 위험과 과중한 농번기 노역, 실기(失期), 세금부담, 관혼상제비용 등의 개인적인 위험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활용되었다. 뿐만 아니라 계를 통해 취미와 오락을 더불어 나눔으로써 구성집단의 응집력을 높이고, 마을사회의 화합을 다지며 공동체사회 속의 일원으로서 정체감을 높여주어 마을사회의 안정성과 결합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구성원들의 복지에 기여하였다. 또한 가정복지가 단지 경제적 풍요와 생활의 안정 뿐만 아니라 신변의 안전을 포함하는 생활의 질 향상에 그 기준이 있다고 할 때, 계의 규범적 제재 또한 가정복지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계에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인 부조(assistance)와 재해 예견적 조치(prevoynce)기능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랜기간 널리 활용되어 왔으므로 복지관행의 대표라고 할 만하다.

지금까지 계에 대한 연구는 경제사, 역사학, 농촌사회학, 인류학, 민속학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연구되었으나 가정복지적 관점의 접근은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계 연구에 나타난 계의 성격, 기능, 역사적 변천과정 등을 살펴보고 복지적 성격이 포함된 요소들을 추출하고 정리하여 가정복지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현대사회에서의 계승점을 모색하는 데 있다.

## II. 복지관행으로서의 계

이제까지 복지는 사회복지의 의미에서 사회학자와 사회복지학자들에 의해서 연구되어 왔는데 이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타율적으로 혜택을 주는 시혜자의 입장에서 접근되었기 때문에 가정복지는 사회복지의 여러 영역들 중의 하나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사회복지 관점에서의 접근은 수혜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으며, 타율적인 사회복지가정을 국가의존적 개체로 전락시킬 우려도 있으며 또한 가정의 자발적인 복지 노력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 마저 있다(하상락, 1989, p 244).

그러므로 복지는 사회를 이루는 구성행이자 복지대상자인 가정이 내부로부터 주체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직면하는 욕구미충족과 사회관계의 결핍상태를 곤란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대응책을 모색하는 적극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가정은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주체이자 '쾌적한 생활을 수호할 권리를 가진 사회구성원의 핵'으로서 가정복지는 '가정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주권보호적 성격'을 가진다. 또한 가정복지는 경제적 복지 뿐만 아니라 화폐로 측정 곤란한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강, 안전, 여가, 기회(빈곤탈피, 계층상승 등), 쾌적 등의 기본적인 생활가치의 충족을 포함한다.

上田天秋(1989, 79-80)는 사회복지의 영역을 광의로 국민의 복지를 지향하는 모든 시책의 총칭 즉, 사회보장, 고용보장, 노동자보호, 보건, 의료, 교육, 주택보장으로서 협의의 가정복지의 전영역

인 아동복지, 모자복지, 노인복지, 신체장애자 복지, 가족상담 및 치료와 생활보호를 포함한다고 했다. 가정복지의 영역은 上田千秋의 광의의 사회복지의 영역 뿐만 아니라 가정 스스로가 인간답게 살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노력을 포함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계에 나타난 마을주민들 스스로의 복지적 노력들을 ① 약자보호, ② 소득과 분배, ③ 노동, 여가, ④ 공공의 안전, ⑤ 교육, 과학, 기술, ⑥ 환경, ⑦ 건강, ⑧ 기타(가족의 구조, 사회이동, 연대관계)의 8가지 영역에 대하여 추출하고 가정복지적 측면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전통사회에서의 가정복지의 구성요소는 오복, 즉 수(壽), 부(富), 강녕(康寧), 유희덕(攸好德), 고종명(考終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통사회에서 복지대상자는 오복을 갖추지 못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부양할 능력이 없으며 부양을 해줄 가족도 없는 4궁(鰥寡孤獨) 즉, 처가 없는 자인 환, 늙어서 남편이 없는 자인 과, 부모가 없는 어린이인 고와 늙어서 자식이 없는 자인 독을 뜻했다. 또한 이조향약의 4대강목 중에 환난상환의 조에는 수화(水火), 도난(盜難), 사상(死喪), 질병(疾病), 고약(孤弱), 무주(誣柱)와 빈핍(貧乏)의 7가지 환난이 복지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집단, ② 친척 등의 혈연집단, 이웃, 종교집단 등의 근린집단, ③ 같은 직업이나 직장을 기반으로 한 기능집단에 의한 도움이다(김상진, 1989, 20). 복지국가가 아직 성립되지 않았던 전통한국사회에서 행정집단은 지원체계가 아니라 오히려 관의 횡포와 가렴주구의 심화로 가계의 위험부담을 가중시키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천재지변과 관의 가렴주구 앞에 약자인 우리선조들은 개인과 가정이 스스로 사회적 필요의 결핍상태에 대응하고, 홀로 부담하기 어려운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린집단과 기능집단사이에서 협동적, 주체적, 자조적으로 계를 조직·운영하였다. 따라서 계는 마을주민들의 협동적인 힘으로 마을지역사회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조정하는 사회적 노력으로서 지역사회 복지노력의

대표라고 할 만하다. 그러므로 계는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사회복지모형 중에서 윌렌스키(Wilensky)와 르보우(Lebeaux)가 사용한 보완적 모델(residual model)의 기능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계의 성격은 서민협동체(김병하, 1958; 장동섭, 1969), 사회상부구조의 고리적 지배에 의하여 하부구조에서 식리성을 띄운 단체(김삼수, 1974),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기능집단(이시재, 1983), 결사와 같은 이익사회적인 결합의 양식(김필동, 1985), 등으로 규명되어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 어느 시각으로 보든지 공동체의식에 기초하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경제적 연대성과 사회적 결속의 형태라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으므로 계의 복지적 성격을 나타내 주고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계를 “국가단위의 공적인 복지제도의 미흡에 따른 주민들의 자구책인 동시에 개인과 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한 자발적이고 협동적인 공동대응책으로서 우리선조들 사이에 행해져온 복지관행”으로 보고자 한다.

### III. 계에 나타난 복지적 요소들

계를 주된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① 공동의 목적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와 ② 공동의 목적을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류된 계에 나타난 가정복지적인 요소를 2장에서 분류한 8개복지영역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의 기본 원리인 부조(assistance)와 재해예견적 조치(prevoyance)로서의 보험적 성격과 강제저축적인 성격, 소득재분배적 성격, 공공복지적 성격 등의 측면에서 논의하면 아래와 같다.

#### 1. 공동의 목적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

공동의 목적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목적의 계는 1) 동계 등 마을단위의 지역공동체로서의 계와 2) 마을 내에서의 특정목적의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1) 마을 단위의 지역공동체로서의 계(동계)

지역공동체로서의 대표적인 계는 동계로서 마

을사람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도로, 보(湫), 제언(堤堰)의 건설 수리; 서당, 동사건립과 마을공동기구 관리; 조세의 보조; 산림의 관리와 동계저행 등 마을공동의 사업을 하였다. 이러한 동계의 기능은 동계에서 행하는 사업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가고 복잡해져 감에 따라 성황계(城隍契), 동계계(洞祭契), 족계, 보민계(補民契), 제언계(堤堰契), 보계(溲契) 호포계(戶布契), 학계, 수정계(修正契), 두레 등으로 세분화시켜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위임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동계는 마을 공동소유의 경지, 임야, 제언, 동회관, 농기구, 농악기, 혼례용구, 상여구, 우물 등을 공동재산으로 보유하고 이를 계에서 공동으로 건설 활용하여 마을사람들 누구나 평등하게 그 재산의 이익을 향수했다. 松契의 경우에도 동계소유의 임야에서 목초와 낙엽을 채취하는 권리를 그 마을사람들에게만 부여함으로써 사실상 입호(入戶)제도의 관행이 있었으며 타 지역 사람들이 침범했을 때 그들로 부터 벌과금을 징수하여 계의 기금으로 썼다(장동섭, 1969 39). 마을사회의 공공재산과 시설물의 공동관리를 통해 주기적으로 내습하는 한해와 수해 등의 재해를 방지하였고 분산된 개인적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제언, 도로, 제방, 공동우물 등의 사회간접시설을 협동을 통하여 구축시킴으로써 공공시설과 사회간접시설을 마련하여 마을주민들의 안전유지와 생활의 질향상에 기여하였다.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전혀 재산을 가질 수 없는 무능력자에게도 배당 몫을 가지게 함으로써 토지나 노동능력이 없는 노약자, 장애인 등 생활능력이 모자라는 자에게도 최소한의 생계비가 보조되는 약자보호기능과 소득재분배기능을 을 하였다.

또한 동계의 두레협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신바람을 돋구는 풍악과 향연을 결드려 고된 농업노동을 즐겁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중노동에서 오는 피로를 씻어 주었으며 농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높여주어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마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가정의 경제복지, 여가복지, 연대관계복지, 환경복지 등에 기여한 바 컸다.

동계는 또한 마을 내의 서당 등의 교육기관을 마을공동의 기금과 전 주민의 노동력으로 마련하는데 주역을 담당하였다. 김필동(1988)의 연구에 의하면 조선시대 말 1905년 원산학원을 효시로 현대적 사학의 설립이 시작된 후 5년 동안 짧은 기간에 수천개의 사립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이의 원동력은 바로 조직적, 물질적 토대로서 계였다. 전통한국사회에 있어서 과거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는 것은 안정된 가계소득의 확보와 신분상승의 중요한 통로였으므로 계의 교육투자를 통한 기여는 가정의 인적자산의 질을 직접 높여주어 가정복지에 큰 기여를 했다. 뿐만 아니라 학문,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사회발전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동계의 교육투자는 가정의 인적환경과 광역환경 개선에 기여하였다. 또한 교육투자는 현재의 가정복지 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정복지를 위한 사회적 토대 마련에 기여하였다.

일제치하에서 계금은 독립운동을 위한 후원자금으로 많이 활용되었으며 1970년 국채보상운동과정에서도 보상금 모금액의 많은 부분이 계를 통한 모금 또는 계의 기금을 출연한 것이었다(신용하, 1980). 이는 계가 식민지 치하에서 애국운동의 중요한 조직적, 물질적 토대로서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데 기여하여 가정복지를 위한 광역환경 기초를 획득하고 공공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노력한 예이다.

동계는 풍교유지(風教維持)와 같은 통제적 기능을 행하여 미풍양속을 권장하고 음주 도박을 금지한다거나 잡기(雜技)를 엄금하는 역할도 하였다. 위반자에게 들참례, 주먹다듬이, 조리돌림, 화지개, 덕석몰이, 수화불통(水火不通)등의 체벌과 집을 헐고 마을에서 추방시키는 강한 제재가 가해지기도 했으며 관에 보고해서 죄를 다스리는 경우도 있었다(장동섭, 1969). 또한 벌금형도 있었는데 벌금형은 계금조성의 중요한 원천이 되기도 했다.

공동체생활에서 도덕적 규범의 유지와 이의 위반에 대한 처벌은 마을내부의 갈등, 분쟁과 범죄를 미리 예방하여 도덕적 규범에 바탕을 둔 공동체의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여 공동의

안전과 생활의 질 향상에 큰 몫을 했다

동계는 상부상조의 기능을 행하여 질병이나 화재 시에 상호구제하기도 하고 계원의 집을 고치거나 지을 때 공동 출역(出役)하여 돕기도 하였다. 또한 한 동계는 행려인이나 결식자에게 약품이나 먹을 것을 마련한다거나 혹은 이들 외부인이 돌봐줄 사람없이 죽었을 경우에는 장례비용을 조달해준 기록도 있으며, 김호일(1984, 177)이 조사한 계첩, 보혈계절목(補血契節目)에는 동회의 성격이 구황(救荒)이나 극빈자 구혈대부(救血貸付)를 목적으로 한 의창, 사창계 형식을 띄고 있는 예도 나타났다. 동계의 자선적 기능은 복지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도움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대상 가정의 복지수준을 직접 높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선을 통한 부의 수직적 재분배기능은 안정된 사회를 유지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일반농민에게는 세금부담이 재난에 가까운 가정의 위협요소였다. 세난(稅亂)이라는 공통의 위협에 노출된 서민들이 최선의 해결책으로서 협동적 복지기구인 동계를 통하여 계급에서 세금을 우선 부담하고 차차 형편에 맞게 갚아 나감으로써 목돈쓰임새를 시간적으로 분산시켜 보험적 성격을 띄웠다. 뿐만 아니라 동계에는 동계에 속한 기본 자산과 벌금, 이자 등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개인의 세금을 동계에서 일부 부담하여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 덜어 줌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복지에 기여하였으며 특히 빈곤층가정에는 이러한 혜택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기도 했다.

## 2) 특정목적의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계(산업계, 종계)

특정목적의 공동으로 추구하기 위한 계들은 주로 동종업 종사자들 간에 조직된 농계, 우계(牛契), 노전계(蘆田契), 선계(船契), 어망계(漁網契), 전계(廩契), 보부상계(褓負商契) 등이 있었다. 농계는 두레조직을 통하여 각 농가에서 일정한 비율로 노동력을 동원하여 마을공동토지와 주민들이 토지를 공동경작하고 그 수확물을 공동배분하는 작업공동체조직으로서 농민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조직되었다. 두레의 마을 공유지 경작은 공공

복지적 성격을 띄었으며, 마을의 사유지 또한 각 가정의 경작지와 노동력의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농민들이 참가하여 경작하여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였다. 뿐만 아니라 과부, 병약자 등의 노동력 결핍자는 두레꾼을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작해 주어 공동부조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또한 농계의 공동재산활용과 공동오락을 통한 가정복지적 의미는 동계와 동일한 부분이 많다.

농우를 공동구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우계나 구우계(購牛契)는 어떤 경우에는 소가 불의에 죽을 경우에는 치료비와 재구입비를 보조하는 경우도 있었다(김병하, 1958, 98). 우계는 가정의 중요한 자산이자 농사일에 큰 역할을 하는 소에 대한 보험의 역할과 소비자 신용의 역할을 하여 가정 복지에 기여했다.

어망계와 선계는 어부들 사이에서 어망이나 배의 공동구입이나 공동사용을 위하여 조직 및 운영되었는데 이 또한 마을 주민 전체의 소득수준을 높히는데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동자금으로 취득한 큰 배는 어부의 위험을 감소시켜 직업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으며 어업생산성을 높여 주어 소득을 확보하는 데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공장인(工匠人)들 사이에는 독점권을 방어하고 성원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공장인계가 있었으며(유원동, 1984, 25-28), 보부상들은 관리들의 간섭과 착취에 공동대응하기 위하여 보부상계를 조직하였고, 유통업자인 당화거간(唐貨居間)과 금융업과 숙박업을 겸한 객주인 환전거간(換錢居間)들은 전계를 조직했다(김병하, 1958, 90-93). 이러한 동종업자 간의 산업계는 상부상조를 통하여 동종업자 간의 결속력을 다지고 구성원들의 필요 자금을 대부해주고 저축하는 금융기관의 역할을 했으며, 직업윤리와 기강을 확립하고, 지배권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독점적 상행위 상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대정부협의단체의 역할을 했다. 또한 계급을 우선적으로 납세를 위하여 씌으로써 납세단체의 역할도 했으며 시장관련자들에게 잡세, 통과세 등을 징수하여 관가에 상납함으로써 납세대행기관으로

서의 역할도 했다. 어려움을 당한 계원을 여타 계원들로부터 각출한 금곡(金穀)으로 구제하는 십시일반형 원조의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경우 계는 필요할 때에 재기자금이라는 긴급수혈을 해주어 신용대출 기능 뿐만 아니라 자선적 기능도 수행했다. 이러한 여러기능을 통하여 직업 안전성이 떨어지는 상공인의 생활전반에 걸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어려움과 불확실성에 대하여 산업계는 그 해결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역할을 하여 각 구성원들의 생존과 가정복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존재였다.

종계는 가정이 직면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대한 공동대처 수단으로 친척들 간에 조직 활용되었으며 혜택은 복지의 전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종계에는 문중 소유의 전답이 있어서 여기서 나는 소출로 문중단위의 행사와 부조비용으로 지출되었고 구성원의 관혼상제의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곤란에 처한 친척에게 도움을 베푸는 자선적 기능도 하였다(최재석, 1985). 특히 종계는 일반적으로 기금의 각출없이 문중의 상속자산을 기금으로 운영되었으므로 빈곤가정의 혜택은 다른 어느 계보다 컸다.

이 밖에도 세금부담에 대한 공동대처를 위해 공물계(貢物契), 군포계(軍布契), 호포계(戶布契) 등이 있었다.

## 2. 공동목적을 개별적으로 추구하기 위한 계

계는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소집단의 공동이해, 또는 특정이해를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조직되기도 했다. 이러한 목적의 계는 1) 계원들 간의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 2) 식리(殖利)를 목적으로 하는 계와 3)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계로 대별할 수 있다.

### 1)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하는 계(상조계)

상조계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문중계, 향약계, 회갑계 등의 친효적인 계와 관혼상제를 위한 장계, 위친계, 부조계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다른 목적의 계들 중에도 대부분 이 기능이 부수적으로 따랐다. 상조계는 대부분 보험적 성격을 띠고 있었는데,

계원 각 가정의 목돈드는 일과 위험요소들을 시간적 조절과 계원간의 위험분산의 기능을 통하여 해결하였다. 계의 구성원은 서로 비슷한 나이와 신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즉 상포계는 모두 다 고령의 부모를 모신 사람들로서 개별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의 자발적 협동의지에 의하여 구성되었다. 전통한국사회에서는 상부상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중에 관혼상제가 대표적이었으므로 관혼상제 때 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혼상계(婚喪契), 혼구계(婚俱契), 장계(葬契), 상포계(喪布契), 세찬계(歲饌契), 차일계(遮日契), 상여계(喪輿契) 등이 발달했다.

상조계에 있어서 계금의 출자 비율은 균일한 것이 보통이었으나 신분에 따라 출자액에 차별을 두는 경우가 왕왕 있었으며 관직에 따라 별도의 기여금을 더내는 경우도 있었다. 김필동(1988, 134-135)의 동계연구에 의하면 모두 17개의 조사 사례중 6개의 사례에서는 주로 재산능력에 따라 출자액에 차별이 나타나고 있으며 부산 사중면 초량동 흥학계는 30냥이하 1냥 이상씩을 출자하고 있어 최고 30배의 편 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출자금의 차이에서 빈자에게 혜택이 부여되는 부의 수직적 소득재분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험의 보장성은 예견되는 위험에 기초하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지 않았을 때는 원금도 되돌려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계는 각 구성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형편의 원칙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계원의 동의를 얻으면 지급되므로, 예견되는 위험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도 원금등을 지급 받을 수 있어서 보장성과 저축성을 동시에 가졌다. 예를 들면 혼상계에 가입하였으나 급히 목돈 쓸 일이 생겼을 때 계원들의 양해를 얻으면 다른 용도로도 계금을 탈 수 있었다. 또한 정한규(1986)의 번호계 분석결과에 의하면 평균월부금리는 1번 29.01%, 24번 109.66%, 13번 4.92%로 수익성이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계참가자는 불균형을 알고도 계를 했다. 순서를 정할 때는 각 구성원의 예측되는 자금쓰임새의 급박함의 정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 순번이 정해지며, 설령 이자률이 가장 나쁜 중간

번호가 높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자보다는 인간관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에 구성원이 되기를 원하는 집단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하여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 공급유기관의 미발달, 신용과 담보능력 부족상태에 있었던 일반주민들에게 있어서 상조계의 이러한 신용대출과 저축기능은 대단히 유용한 경제복지 수단이었다.

## 2) 식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

식리계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추구를 위하여 자금을 모아 계의 기금으로 확보해 놓은 다음 이기금을 대부함으로써 이자를 증식시켜 각기 목적에 따른 용도로 충당해 나갔다. 따라서 식리사업이 잘되면 계는 번영하며, 식리사업이 여의치 못하면 해체되거나 새로이 중수(重修)하지 않으면 아니었던 기록이 이조시대의 계첩 속에 종종 나타나 있다. 그러므로 식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계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채무상환에 대한 규정 또한 대단히 엄격하여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연대 보증인이 보상해야 하고 때로는 채무자 일족에게까지 책임을 지우기도 했으며 관에 고발한 예도 있다(장동섭, 1969, 34 & 53).

이조중기의 대부분의 계는 자금조성의 일정 목표액이 될 때까지 이를 저치 증식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표기간 내에 발생하는 각종지출에 대응하는 수단으로써 정기출자 외에 필요에 따라 임시각출이 있게 되고 따라서 이 자금조성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에는 임시수검 방법은 해소되었다(장동섭, 1969, 37). 이러한 방법으로 기금이 조성되고 난 후부터는 관혼상제 등의 상호부조를 필요로 하는 행사 때에 계금에서 대신 납부하거나, 계모임 때의 회식비 등으로 지출하여 계공동체와 계구성원의 공동식리와 오락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공동계금운용을 통하여 계원들은 자주있지는 않으나 목돈이 드는 자신의 경조사 비용과, 큰 목돈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자주있는 다른 계원의 경조사를 위한 부조금을 모두 계금으로 충당시킴으로써 이중보험장치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계의 기금은 당대에

분배되지 않고 자손대에 까지 식리를 계속하여 기금이 상속된 예도 많아서 자손의 경제적 복지의 기반이 되기도 했다(김병하, 1958, 99).

이러한 창설 때에 한번 출자하는 계의 기능은 계원에게는 현대의 신탁자산의 운용기금 이자활용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며 대부를 받는 사람에게 급전이 필요할 때에 융통받을 수 있는 소비자 신용기관으로서 가정복지에 이바지하였다. 워낙 가난하고 자금수요량에 비하여 공급이 모자라는 형편이었던 전통사회였으므로 계금의 이자율은 높은 편이었으나, 다른 개인 대부자가 부여하는 이자율보다는 합리적이어서 서민들이 필요할 때에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 신용기능으로서의 계이용은 계금의 대부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저축계의 앞 번호를 탐으로써 가능했다. 이러한 형식의 자금조달은 대부형태의 자금조달보다 이자율이 낮아서 선호되었을 뿐만 아니라 꼭 필요한 때에 손쉽게 돈을 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소비자 신용기관의 역할을 했다.

번호계는 정기적으로 분납출자하여 순번대로 타는 형태의 계로서 앞번호를 타는 사람은 대부를 받는 형태가 되고 뒤번호를 타는 사람은 저축을 하는 형태가 된다. 대동계를 제외한 일반 계는 가입이 자유로우나, 대부분 친지들 중심으로 조직되기 때문에 자신이 구성원이 되기를 열망하는 집단에 낄이로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무리가 되더라도 계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 강제저축적인 성격을 띠기도 했다. 이러한 저축적 기능은 공적인 금융제도가 미발달 상태에 있었던 전통사회에서 재산증식을 위한 사적인 금융기관의 형태로서 가정의 불확실성 대체능력을 키워주어 경제복지에 기여한 바 컸을 뿐만 아니라 가계소비성향을 조절시키는 역할을 하여 가계재정관리능력을 높혀 주었다.

## 3)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계

어떠한 계라 할지라도 친교 및 상부상조와 전혀 무관한 것은 없을 것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계들은 경제적인 면보다도 계원들의 친목과 풍교유지를 중요한 기능으로 한다. 사계(射契), 사정계

(射亭契), 의계(誼契), 금란계(金蘭契), 동갑계(同甲契), 노인계(老人契), 시계(時契), 산유계(山遊契), 향약계(鄉約契), 수신계(守信契), 사마계(司馬契), 의신계(義信契), 요계(僚契) 등은 사교계의 범주에 속한다. 사계와 사정계는 사교의 수단으로 활쏘기의 연습을 하고, 시계는 농한기에 계원들이 일정한 장소에 집회하고 사문을 교환하는 오락적·사교적 모임이다. 향약계, 수신계, 동의계는 서원이나 향교를 중심으로 유림이 주동이 되는 교화적 사교단체이며 노인계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집회하여 회음함으로써 사교의 수단으로 삼은 계이다. 동년계는 같은 해에 과거에 급제한 사람까지 사교의 목적으로 조직하였던 것이며 요계는 같은 관가에 근무하는 관원들의 계였으며 사마계는 진사와 자손들의 사교단체이다(김병하, 1958 : 94).

사교계는 취미와 오락의 일치로 통해서 계원간의 화합을 다지고 여가를 선용하는 친목기능을 주로 하였다. 그러므로 자연히 비슷한 취미를 가졌거나 비슷한 계층의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취미행사를 하고 오락을 즐겼다. 고된 노역과 무관한 무위도식하는 양반계층은 안정된 부를 바탕으로 풍류를 즐기며 취미에 몰두했기 때문에 사교계는 양반사회에서 더욱 성했으며 일부 양반계, 문무계, 사정계에서는 가입자격이 양반에 한정되기도 했다(하상락, 1989 : 232).

고려 무신정중부의 난 때 문신이 다 화를 입었을 때 강자량이 만든 계의 계원 만이 무사했다는 기록(최남선, 1943 : 60-62)이 있는 것으로 보아 때에 따라서는 사교계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근세조선사의 특징은 당쟁이라 할 수 있는데 봉당의 쟁론은 수신계, 의신계와 같은 계를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졌다(김병하, 1958 : 85). 갑신정변 시에는 행동파 핵심분자들이 조직했던 비밀결사단체로서 충의계가 있었는데(김필동 : 1985) 이들은 단순한 사교단체의 성격을 넘어 정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정치단체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사교계는 친목도모가 목적이지만 의기상통하고 취미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단체인 만큼

관혼상제 때에 서로 초대하고 부조하는 상부상조적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공동사교와 여가선용을 통하여 사교계는 계원들의 심리적 안정감과 소속감 증대에 기여하여 삶을 풍요롭게 했다. 뿐만 아니라 사교계는 학술, 정치, 사회, 경제, 윤리 등의 각 분야의 여론형성과 반영에 기여하였으며, 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의 질 향상에 기여했고, 갑신정변 때는 정치단체로서 거사를 기도하는 조직의 기반이 되었고 일제치하에서는 독립운동의 조직과 자금원으로 활용되기도 하여 가정의 인접환경인 마을사회와 광역환경인 국가의 안녕 발전에 기여하여, 가정복지의 기반형성에 도움이 되었다.

#### IV. 복지관행으로서 계의 한계점

복지의 기능 중에서 자선을 통한 소득의 수직적 재분배기능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은 동계와 종계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일부산업계와 부조계에서 차등 출자를 통한 소득재분배적 기능이 발견되고 하나 구성원이 될려면 우선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동류집단에 속해야 하므로 자선적 기능은 시혜가능한 부유층과 복지대상자인 빈곤층이 같은 계원이 될 때에 국한되어 나타났다.

이조향약의 4대강목 중에 있는 환난상휼의 조에는 수화, 도난, 사상, 질병, 고약, 무주, 빈핍의 7가지 환난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율곡은 환난상휼을 위하여 사창계를 만들었다. 사창계는 향약이계의 형식으로 취한 것으로서 그 당시 고리대금기관으로 전락한 관영 의창제도의 폐단에 대응하여 조직된 저리의 대부기관이었다(김병하, 1958, 87). 그러나 사창계를 위시한 자선적 성격이 강한 계에서도 환난을 당한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도움이 장기저리의 융자형태이지 반대급부를 바라지 않는 자선은 아니었다.

경상남도 오어사에 있는 비석에 “공공사업에 대한 기부와 불교신앙을 목적으로 하는 염불계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교형, 1975). 그러나 ‘공공사업에 대한 기부’는 공공채투자자의 형태로 마을 주민들에게 공동으로 혜택이 가지만 직



접적인 자선의 형태로 부가 수직적으로 재분배되는 것은 아니다. 불교의 교리에 보시가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염불계에는 자선의 기능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기는 하나 사료에 나타나지 않았다. 불교사 분야에서 더 심도깊은 연구를 통하여 불교인들의 계의 복지적 기능이 규명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통사회에서 오복의 첫째조건으로 수, 셋째조건으로 장녕과 다섯째조건으로 고종명을 들고 있어서 건강은 다섯가지 욕구 중에서 3가지를 차지하는 중요 복지요소였는데도 불구하고 계는 전혀 질병, 죽음과 장애에 대한 보험적 기능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의료시설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라 병에 걸리면 앓다가 자연 치유되거나 죽게되므로 오늘날과 같이 의료비지출이 가계를 크게 압박하지 않았고, 병의 진단과 병세에 따른 보상기준 설정이 어려워 계금지불의 평형유지가 힘들었으며, 전염병이 들 때는 환자와 사망자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계금의 원금까지 보전하기 어려워지는 사태가 생겨서 계의 유지가 어려워진 때문이 아닐까 추측된다. 또한 의학의 미발달과 의료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가벼운 병 한 두가지를 앓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는 집이 별로 없을 정도로 병은 각 가정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므로 병마는 계원들의 상부상조적 노력으로 대처할 수 없을 만큼 각 개인과 가정에 빈번히 일어나는 잦은 위험요소였기 때문에 보험대상 조건인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아닌, 개인에게 개별적 영향을 미치는 것”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불구나 장애로 인한 노동력의 상실과 죽음에 대한 대책 또한 계의 기능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계가 원칙적으로 상호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확률이 낮은 장애에 대비하여 계금을 납부하고도 일생동안 탈 확률이 거의 없는 계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매력 없이 있었고 이러한 계가 발달하자면 많은 참가자에 의한 위험의 분산과 그에 따른 각자의 적은 부담이 필요한데, 주로 면대면의 가까운 사람으로 구성되는 계의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조 속종 때에 검계라는 일종의 범죄집단의

제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와 같이 계를 통한 끼리끼리 어울림은 가정의 복지를 해치는 집단을 키워주는 역할도 했으며 양반들 끼리의 계는 계층사회의 친민들에게 소외감을 주기도 했으며 계모임을 통하여 당쟁을 심화시킨 역기능 또한 있었다.

## V. 시대에 따른 계의 변천

계의 기원에 관한 학설은 고대춘락회의설(최남선), 두레기원설(이병도), 향도설(김양기), 납세단체설(젠쇼오 에이스케), 향약설(이다니 젠치이) 등 여러가지가 있으며(김삼수, 1964 : 59-137) 문헌상(삼국유사)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최초의 계는 가배계(嘉俳契)이다. 고려 말의 호포계와 이조초기의 충효계, 종계, 풍수계 등의 명칭을 가진 계가 있었으나 이조중기 이전의 계는 학계에서 계성립의 확실한 시기로 받아들이는 데 반론이 있다. 그러나 이수광의 지봉유설(1613), 계첩 등의 많은 자료가 입증하므로 이조중기를 계성립의 확실한 시기로 받아들이는 데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다.

임진왜란 후에 이르러 특별히 계가 성행하게 되는데 이는 당시의 극심했던 국가 통치력의 이완과 관리들의 무절제한 가렴주구(苛斂誅求), 유교의 형식주의로 인한 과중한 관혼상제비용의 부담과 농민사회의 빈곤화에 있었다(장동섭, 1969 : 39).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은 서민사회 스스로를 옹호하고 지탱해 가는 수단으로서 계를 발달시켜 각종의 사회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당대의 사회복지의 결핍을 보충해 왔다. 이 시기의 계는 동계를 비롯하여 친효적인 계, 협동적인 계, 공공사업적인 계 및 관혼상제를 위한 상조계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식리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었다. 또한 식리활동과 결부되어 있는 계들에 있어서도 계의 식리성 또는 재물에 의한 협력방식이란 측면은 계의 조직과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가졌다. 식리목적의 계는 한말의 사회경제적 불안을 배경으로 관리들의 가렴주구의 심화와 진출제도의 고리대화에 대처하는

서민들의 자구노력으로 발달되었다(최호진). 식리계는 산통계(算簡契), 작능계(作罷契), 월수계(月收契), 일수계(日收契), 금융계(金融契), 통계(通契) 등으로 분화되면서 일종의 사금융제도의 성격을 띄게 되었으며 도박계 또한 생겨났다. 이러한 도박계와 식리계의 출현은 계 자체의 전통적인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동계로 대표되는 공동의 목적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는 한일합방 후 일본정부당국의 공동재산착취, 읍면제도의 실시와 행정기구의 변화에 의해 쇠퇴되기 시작하였다. 지연공동체의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혜택부여는 일제 말의 동계의 소멸과 함께 사실상 없어졌다. 학계 또한 서당의 폐쇄와 근대적 학교교육의 실시에 따라 점차 소멸되었다. 종계는 인구의 도시화, 대가족제도의 붕괴 및 서구식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그 조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으며, 현재는 친척 간의 친목계의 형태로 일부 남아있다.

그러나 식리계는 해방후 크게 번창하면서 사금융화 되어 갔다. 오락과 친효를 도모하는 독립된 계나 단순 협업에 의한 생산적 계가 없지는 않았으나, 그러한 계의 기능도 식리계의 기능에 편입되어 금전적 관계없이는 오락도 친효도 성립될 수 없을 만큼 고리계의 집중적 지배형태를 띄게 되었다(김삼수, 1984 : 47-48). 식리를 주요 수단으로 하는 영리목적의 계는 1972년 8.3조치로 기업체에 빌려준 사채가 동결될 때 까지 일반가계의 자금조달 수단은 물론 생산활동을 하는 기업체에 계도 주요한 자금공급원이 될 정도로 번창했었다. 8.3조치 이후 은행과 공금융기관이 계의 기능을 대항하게 되면서 식리목적의 계는 현저히 줄었다.

## V. 결 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조중기 이전의 계는 공동의 목적을 집단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가 주종을 이루었으며 공동의 목적을 개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계에 있어서도 공동사회적인 성격 안에 이익사회적인 성격을 내포한 것이었다.

이조말엽 이후의 계는 성격이 변질되어 목적이

나 기능 면에서 공동사회적인 성격은 약화되고 이익사회적인 외양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계의 가정복지적 기능은 이조말 동계의 소멸과 함께 많이 쇠퇴했다. 계의 복지적 기능이 쇠퇴해 가는 이유는 계의 기반이 공동체의식을 가지는 '남이 아닌 사이'라는 인간관계의 유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현대의 근린집단과 기능집단 사이에서 공동체의식을 느끼는 '가까운 사이'의 범위가 축소된 데에 기인한다. 근린집단 사이의 공동체의식을 나누는 범위의 축소는 도시지역에서 특히 두드러져 시혜가능한 계층과 복지대상층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가고 있다.

계는 대표적인 복지관행으로서 사회적 결여에 대한 주민 스스로의 자조적이고 협동적인 노력으로 발달되어 왔으므로 현대한국사회에 있어서도 시민 스스로에 의한 보완적 복지모델이 발달될 수 있는 전통성이 존재하는 것을 뜻한다. 현대사회에서 한국의 문화 속에 녹아 있고 한국인의 의식 속에 고착되어 있는 계의 정신, 조직과 특성을 계승시켜 가정복지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계는 타인관계인 복지대상자와 시혜의 사이를 '남이 아닌 가까운 사이'와 '정이 통하는 사이'의 관계로 연결시키는 사회중간집단이 될 수 있다. 계를 통하여 장애자, 극빈자, 장기질환자, 미혼모 등의 공동의 어려움을 가진 가정의 가족들이 조직되고 이러한 계조직을 대표 단체로 발전시켜 시혜 가능한 사회단체, 종교단체, 공공기관 등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알리고 가능한 도움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요청 할 때 가정복지 향상노력은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인적자원으로서 자원봉사자는 대단히 중요한 복지자원이다. 여가시간이 많고 계를 통한 모임 활동이 활발한 중산층 주부들과 복지대상자 계모임을 직접 연계시킬 수 있는 중개노력이 정부, 공익단체, 사회복지단체, 언론과 학계에서 적극적으로 이루어 진다면, 시민조직으로서의 계모임은 복지요청기관과 자원봉사기관 및 복지기관으로 유도되어 민간차원에서 복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 주거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면적인 지방자치 제도가 실시되어야만 된다. 주민들의 지역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가정생활의 질이 높아진다고 느낄 때 지역공동체사회는 활성화되고 공동체의식을 나눌 사람들의 범위확장을 통해서 민간 수준의 가정복지는 향상시킬 수 있다.

현대사회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계정신은, 기능집단인 직장공동체 사회에서 사원복지, 노동조합, 공제회, 신용조합, 업종별협회 등을 통하여 비교적 잘 계승되고 있다(하상락, 1989 : 235).

기능집단과 근린집단이 동일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농촌사회는 동계의 붕괴이후 결속력이 급격히 약화되어 갔다. 특히 최근에는 농민의 도시이주와 외국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따라 농촌은 황폐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농촌사회붕괴에 직면해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두레공동체를 통하여 협동해온 전통을 되살려 지역공동체(근린집단)이자 직장공동체(기능집단)인 농업용역회사를 설립 활용하는 것은 농업경쟁력은 높이고 농촌사회를 번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의 식리기능을 제조직단위의 투자클럽 형태로 활용하면 자체 포트폴리오(portfolio) 구성이 가능하여 위험분산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혼자서 적은 자산을 투자할 때보다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시장개방과 더불어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금융업계에서 제조직 단위의 풀(pool) 상품을 개발한다면 수신율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주로 타 학문분야의 기존 연구자료에 의존하여 계의 복지관행을 고찰을 한 데 있다. 앞으로 '계첩' 등의 역사적 자료를 직접 분석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고교형(1975). 이조불교, 조선사상사대계.

2) 김병하(1958). 계의 사적 고찰, 중앙대학교 경상학보 7집.

3) 김삼수(1964). 계의 제학설의 음미, 한국사회경제사연구(서울 : 박영사).

4) 김삼수(1984). 한국경제 36년, 숙명여자대학교출판부.

5) 김삼수(1974). 한국경제사연구, 박영사.

6) 김상진(1989). 현대사회와 사회정책, 서울대출판부 p20.

7) 김필동(1985). 계 연구의 성과와 반성, 재정향, 사회학연구 8, 서울대학교 사회학.

8) 김필동(1988). 한국 고·중세 사회의 구조와 변동, 한국사회사 연구회 논문집II, 문학과 지성사, 127-154.

9) 김호일(1984). 조선 말에서 일제하의 농촌사회의 동계에 관한 연구, 한국학보, 155-203.

10) 신용하(1980). 한 말의 애국개몽운동, 한국근대사와 사회변동, 문학과 지성사.

11) 유원동(1984). 한국의 상인정신에 관한 연구, 한국소매업협회.

12) 이각종. 관청에서의 계조사, 조선민정자료집 19 23, 장동섭 1969, 9에서.

13) 이시재(1983). 한국전통사회에 있어서 서민협동체로서의 계에 관한 연구, 전남대.

14) 장동섭(1969). 전근대 사회에 있어서 서민협동체로서의 '계'에 관한 연구. 논문집, 제 5집, 전남대학교.

15) 정한규 계의 사회경제적 요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한국산업연구소.

16) 최남선(1943). 고사통, 60-62.

17) 최재석(1969). 계집단의 연구의 성과와 과제, 김재원회갑기념논총, 을유문화사, 1969.

18) 최재석(1985). 한국농촌사회연구, 일지사.

19) 최호진. 이조말기에 있어서 고리대부자본연구.

20) 하상락(1989).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2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제 7권, 368.

22) 上田千秋(1989). 사회복지학 원론, 서윤역, 시인신서, 30, p79-80.